

고민시 “스위트홈, 터닝포인트 된 선물 같은 작품”

넷플릭스 ‘스위트홈’, 반항기 가득 여고생 역 ‘리틀 김민희’ 시선...연기력으로 존재감 발휘

“발레하는 장면 위해 7개월 동안 연습해”

올해 tvN ‘지리산’→KBS ‘오월의 청춘’ 출연

“작품이 주목받을 줄 알았지만, 저에게도 이렇게 큰 관심이 올지 몰랐어요. 이런 반응이 좋고, 감사해서 울컥하기도 해요. 스위트홈은 (연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선물, 축복 같은 작품이에요.”

배우 고민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스위트홈’에서 반항기 가득 한 여고생 역으로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일명 ‘리틀 김민희’로 불리며 신비스러운 마스크로 시선을 끈 고민시는 비주얼 이상의 매력과 연기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12월 화상 인터뷰로 만난 고민시는 “아직도 오디션에서 합격한 순간이 떠오른다”며 “감독님이 은유를 하자고 했을 때가 여전히 생생하다”고 추억했다.

고민시는 때사에 빠짝한 사춘기 소녀 이은유를 연기하며 당찬 말투와 냉소적인 태도로 묘한 매력을 자아냈다.

계속되는 재난 상황 속에서는 괴물과 맞서 싸우면서 성장하는 인물의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 호평받았다.

고민시는 이은유를 표현하기 위해 외적인 변화는 물론 말투부터 주입세,

행동까지 디테일하게 연구했다고 한다. 발레를 사랑하는 캐릭터에 걸맞게 그동안 꾸준히 연습해왔던 발레 실력도 발휘했다.

고민시는 “2018년 영화 ‘마녀’를 찍을 때 체중을 불려서 57~58kg 정도 됐는데, ‘스위트홈’을 찍으면서 살을 빼다”며 “45kg 정도를 만들어서 12~13kg 정도 뺐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첫 등장 장면이 보여줬던 발레하는 모습을 위해 “7개월 동안 연습했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고민시는 “몸을 쓰는 연기를 할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80% 정도 나오는 수준”이라며 “짧은 장면이지만 첫 등장 장면이 임팩트가 있으면 해서 최대한으로 끌어 올려보자는 마음으로 다이나믹하게 연기했다”고 말했다.

SNS 팔로워 늘어 인기 실감 “상황 즐기고 싶다”

‘스위트홈’은 공개 4일 만에 해외 13개국에서 1위, 70개국 이상에서 톱10 순위에 들며 단숨에 해외 시청자들까지 사로잡았다.

고민시도 “소셜이나 SNS 팔로워 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인기를 실감하

고 있다”며 “아직까진 얼떨떨하기도 하지만 충분히 이 상황을 즐기려고 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유 캐릭터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엇갈릴 것으로 봤다. 고민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호평이 많아서 놀랐다”며 “극 중 유일하게 사이드 발언도 많이 하고 관객 입장에서 대변하는 대사도 많아서 좋다고 해주시더라. 우현 선배님께 했던 과격한 제스처 같은 리액션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반응이 좋다고 들었다. ‘코리안 제스처’라고 하는 말이 좋았다”고 떠올렸다.

괴물과 맞서는 장면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액션’이 하고 싶다는 바람을 이은복 PD에게 드러내기도 했다. 고민시는 “감독님께 ‘저도 괴물과 싸우고 피를 묻히고 싶다’고 했는데 감독님이 ‘너는 말로 활약을 해줘야 해’라고 하셨다”며 “시즌2에서는 액션 연기를 멋지게 선보이고 싶다”고 밝혔다.

등장인물들과의 케미도 언급했다. 이도현과는 ‘사약 납매’라는 애칭을 얻었고, 송강과는 묘한 감정선으로 음원을 받았다.

고민시는 이도현과의 호흡에 대해 “(이은복) 감독님이 배우들의 눈빛이 좋았다고 하시는데 감독님이 워낙 특유의 멜로 연출을 잘 하셔서 때문에 납매이지만 애뜻함이 디테일하게 보인다”고 쭉스러워했다.

이어 “오히려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됐던 게 개인적으로 팬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현장에서 의도하지는 않았

다”고 했다.

고민시와 이도현은 올해 방송 예정인 KBS 드라마 ‘오월의 청춘’으로 재회한다. 1980년 5월,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버린 아련한 봄 같은 사랑 이야기를 담은 휴먼 멜로드라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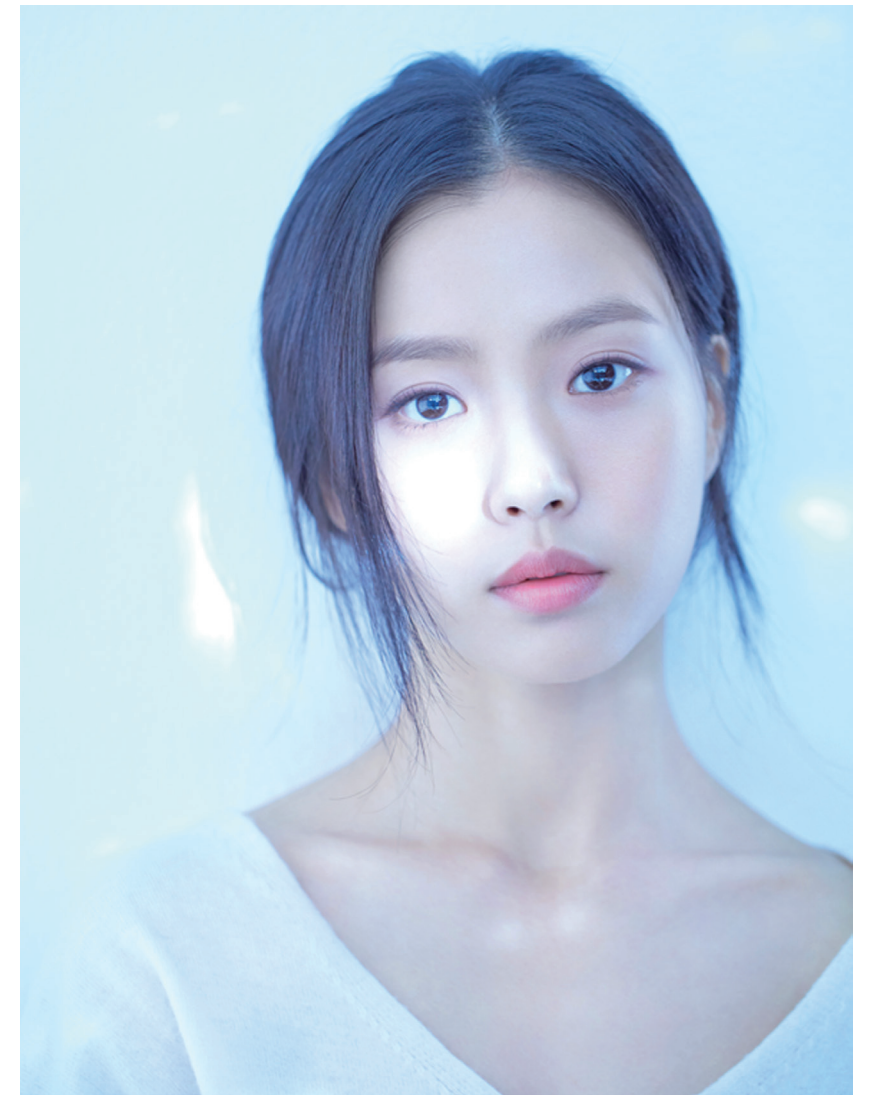
고민시는 “‘스위트홈’ 촬영이 끝나고 한참 뒤에 안부를 물었다. 그러다가 제가 ‘좋은 작품에 들어가게 됐다. 남자 주인공이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도현 배우랑 ‘오월의 청춘’ 감독님이 단막극을 같이 했었다고 하더라. 혹시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캐스팅이 이루어질지 몰랐다. 사약 납매를 아쉬워했던 팬분들도 기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송강과의 케미에 관해서는 “시즌1에서는 이은유가 현수를 보며 여러 감정들을 느꼈지만, 시즌2에서는 자연스럽게 로맨스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누구의 닳은꼴 아닌 배우 고민시로 각인 시키고파”

데뷔 4년 차가 된 고민시는 김민희와 조윤희 등 선배 배우들의 모습과 ‘닳았’다는 평도 받고 있다.

고민시는 “너무 부끄럽고, 언급된 선배님들께 죄송하기도 하다. 이제 시작하는 새내기 같은 느낌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배우 분들이라 기분은 좋다”면서도 “그만큼 열심히 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누군가의 닳은꼴’보



다는 저만의 매력을 더 보여드리고 싶고, 배우 고민시로의 각인을 확실하게 시켜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고민시는 ‘스위트홈’ 이후 tvN ‘지리산’과 KBS 2TV ‘오월의 청춘’까지 내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넷플릭스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의 공개도 앞두고 있다.

“사실 아직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는 모르겠지만 매작품마다 적정량의 고민을 하기보다는 200%, 300% 고민을 해서 캐릭터를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앞으로도 노력할거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콜센타’, 새해부터 ‘흥’ 전도...최고시청률 16.4%

2021년 첫날 동시간대 예능 1위



TV조선 ‘사랑의 콜센타’가 분당 최고 시청률 16.4%를 기록하며 2021년 첫날 동시간대 예능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일 방송된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이 15%, 분당 최고 시청률은 16.4%였다.

종전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시간대를 옮긴 후 첫 방송임에도 1위를 유지한 셈.

이날 방송에서는 톱6과 노지훈, 이찬성, 양지원, 한이재, 옥진옥, 장영우 등 ‘다시 보고 싶은 트롯맨’의 대결이 펼쳐졌다.

톱6는 오프닝 곡으로 ‘희망가’를 불러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톱6와 다시 보고 싶은 트롯맨들 간 별인 새해 선물장판 대결이 스타일 넘쳤다.

1등부터 12등까지 등수별로 다른 선물이 제공됐는데, 1등에게 현금 200만원이 상금으로 수여됐다. 실시간으로 등수와 선물이 계속 바뀌어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첫 주자였던 옥진옥은 영탁의 ‘누나가 딱이야’로 95점을 받았고, 노지훈은 이재성의 ‘그 집 앞’을 소화해 90점을 받았다. 하지만 이찬원이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로 100점을 받으며 1위를 놓쳤다.

한이재는 신곡 ‘누구 없나요’를 공

개했다. 영탁이 프로듀싱, 정동원이 색소폰 세션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곡이다. 그러나 89점에 그쳐 안타까움을 더했다.

정동원 역시 고득점을 얻기 위해 장윤정의 ‘돼지토끼’를 택했으나 89점을 받아 한이재와 동점을 이뤘다.

영탁은 정재은의 ‘연락선’을 열창했으나 87점을 기록했고 임영웅은 남진의 ‘빈 지게’로 96점, 정영우는 주병선의 ‘칠갑산’으로 국악 트롯을 완벽히 표현, 99점을 차지했다.

점수 뒤집기가 가능한 ‘유닛 대결’에서는 톱6 유닛인 장민호-영탁-임영웅-정동원 ‘장탁영웅’ 팀과 트롯맨6 유닛 노지훈-양지원-한이재-장영우 ‘지유우 팀’이 맞붙었다.

지유우팀은 ‘배를 걸지마’로 92점을, 장탁영웅팀은 ‘댄싱퀸’으로 97점을 받았다.

이러한 개인전에서 장민호는 오승근의 ‘인생이란 꿈이아로’로 90점, 이찬성은 조항조의 ‘걱정 마라 지나가다’로 92점을 받았다. 양지원은 나훈아의 ‘마너먼 고향’으로 100점, 김희재는 장윤정의 ‘애가 타’로 91점을 차지했다.

TV조선 ‘사랑의 콜센타’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현빈♥’ 손예진, 열애 인정 후 “예쁘게 잘 가꿔볼게요”

‘사랑의 불시착’ 종영 후 좋은 감정 갖고 연인 관계로 발전



배우 손예진이 현빈과의 열애 인정 후 SNS에 심경을 전했다.

손예진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해가 밝았어요. 처음으로 일이 아닌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앞에 서려니 왜 이토록 부끄러운 걸까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요...음...음...네 그렇게 됐습니다.

하하”라고 꽃바구니 사진과 함께 글을 남겼다.

이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무슨 말이라도 해야될 것 같아서,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예쁘게 자알 가꿔봐도도록 노력할게요”라고 밝혔다.

‘살림남2’ 팽현숙·최양락, 하차...후임 최수종♥하희라

제작진, 이들 부부에게 감사패 전달

개그맨 최양락·팽현숙 부부가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살림남’은 남자들 시즌2 MC에서 하차했다.

2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 ‘살림남’은 남자들 시즌2 제186회에서 새롭게 합류한 양준혁·박현선 예비 부부의 첫 이야기와 살림남들이 연예 대상을 준비하는 모습과 최양락·팽현숙 부부의 작별 인사가 그려졌다.

윤주만과 노지훈은 이날 방송에서 팽현숙 부부와 연예대상 축하 무대 연습을 위해 현준의 집을 찾았다. 현준과 현준 어머니가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를 이끌었고,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

현준의 지하 연습실로 향한 일행은 편한 옷으로 갈아 입고 연습을 시작했고, 이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예리도 합류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러운 몸동작으로 우려를 불러왔던 주만과 지훈은 연습이 거듭될수록 자연스러워졌고 네 사람의 호흡도 맞아 들어갔다.

연습 후 현준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바로 단체 대화방도 만들며 가까워졌다. 이와 함께, 연예대상 시상식 준비를 위해 네일숍과 슈트숍을 들르고 타로 점 보는 곳에 가서 연예운을 알아보는 김일우와 살림남 식구들에게 선물할

레몬청을 만드는 윤주만 부부의 모습도 공개됐다.

마지막으로 팽현숙·최양락 부부는 이날 방송을 끝으로 ‘살림남’ 하차 소식도 전했다.

녹화가 끝나자 팽현숙 부부와 윤주만, 노지훈은 스튜디오를 찾아 이들 부부에게 인사했다. 제작진은 이들 부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이들 부부는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17년 ‘살림남2’에 합류한 이들 부부는 다음해인 2018년 KBS 연예대상에서 베스트 엔터테인먼트상을 받았다.

후임으로 텔러트 최수종 하희라 부부가 ‘살림남2’에 합류해 이미 첫 녹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함소원 “나도 인간인데 울기도 한다”...악플 심경 토로

텔러트 함소원이 악성댓글과 비난에 대한 심경을 고백했다.

함소원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실시간 오징어 먹방을 펼쳤다. 딸 혜정과 시작했지만 혜정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려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이에 함소원은 “혜정이 방송 욕심이 엄청나다”며 “낮에도 촬영 연습을 혼자 막 라이브 방송 연습을 한다. 혜정이 연예인 끼 있다. 엄

마가 방송하면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 댓글에 대해 “머칠 많이 힘들었다”며 “많이 울었다. 공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겪고 지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걸으면 씩씩해 보여야 한다. 혜정이 있으니 엄마가 슬픈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 나도 인간인데 많은 분이 뭐라 하면 울기도 한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이어 “내가 삼삼할까 봐 응원글도 엄청 많이 보내줬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함소원은 음급실에서 아픈 혜정을 돌보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찍고 진찰도 보모에게 맡겨 비난을 받았다. 최근에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에서는 중고려대 중 매너가 없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